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 작품 꼭 보세요”

폐막 10여일 앞...도슨트 작품 추천 미니멀리즘 정수·환경문제 작품 꼽아

‘미래 2000년대 생활상’, ‘유럽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역사’, ‘아원의 시공간’, ‘별종위기 동물’, ‘최후에’, ‘디자인 해부학’ 등...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폐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8명의 도슨트들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8개의 작품을 추천했다. 현장에서 디자인비엔날레 성공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도슨트들이 추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 미래 2000년대의 생활상=이 작품은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린 집지 삽화다. 당시 작품에 나왔던 태양열, 전기차를 비롯해 로봇 청소기, 원격 교육 등 18개의 기술이 현재 상용화됐다. 작가의 예안이 돋보이는 전시물로 눈길을 끈다.
- ▲ 유럽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역사=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선구자인 ‘디터람즈’가 독일의 브라운사에 재직했을 당시 만든 디자인 제품들이다. “더 적은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명언은 기술이 바뀌어도 본질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 컬러베이스=작품은 거대한 닷 모형과 소리, 색감 등 신비스러움을 자아내는 공간이 특징이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의 도슨트 8명이 추천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4560디자인하우스’(왼쪽)와 ‘디자인해부학’.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깨끗한 제주바다를 위해 활동하는 세이브제주의 영상이 돋보인다.

▲최후에=작품 설명을 듣기 전 대부분 관람객들은 ‘요조’ 또는 ‘보트’라고 말한다. 작품의 소재도 스티로폼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제목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관(棺)’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최후에’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메시지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아원의 시공간=문화가 결합된 전통 한옥은 아름다움과 공간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전시물이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아남의 작품이 접목된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뱃사공을 불러내 풍광을 감상하는 작가의 조준도 해석도 재미있으며, 전통 한옥과 어울리는 맷돌은 옛 고향의 정서를 환기한다.

▲별종위기 동물=벽에 관람객들이 컬러스티커를 붙여 멸종 위기 동물의 잃어버린 색을 찾아주는 체험 공간이다. 전시 공간과 벽면을 둘러보면서 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종 위기 동물은 무엇이 있으며 현 상황은 어떠한지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다. QR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장해 가상공간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며 색다른 체험 공간으로 화제를 모았다.

▲디자인 해부학=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각각 부품을 분해하지 않는 이상 내부 구조를 알 수 없다. 레고로 풀어낸 작품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디자인 해부학을 다른 이야기와 결합해 흥미를 배가한다. 2023년 열린 10회 디자인비엔날레

를 기념해 2023개 레고를 사용한 작가의 재치가 돋보인다.

▲market anymore=사과에 붙은 노란라벨 속 낱파 ‘2100년 01월 01일’이 어떤 의미인지 물으면 관람객 대부분 유통기한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상품 라벨에는 사과가 멸종 되는 날짜와 이유가 표기돼 있다. 소비자와 관객들에게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위트 있게, 하지만 묵직하게 전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원곡자가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

작은 공연 ‘이매진 데스크콘서트’ ‘가을 우체국...’ 등 노래 관객 환호

군 경력과 무관하게 명곡 ‘이등병의 편지’는 전국민 누구나 들어봤을 것 같다. 군입대를 앞둔 청춘의 심정을 녹여낸 가사는 세대를 초월해 지금도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김광석, 전인권 등이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지만 작사·작곡을 맡은 것은 김현성(61)씨.

지난 27일 광주 이매진도서관 메이홀 2관에서 열린 ‘이매진 데스크콘서트-김현성 가을우체국 앞에서’는 올해 40돌을 맞은 ‘이등병의 편지’를 원곡자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공연이 열린 이매진도서관은 ‘정숙해야 하는 통상적인 도서관과 차이가 있었다. 마음껏 노래하고 박수칠 수 있는 데스크 콘서트(작은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는 방식) 홀이었기 때문. 뒤편에 빼곡히 꽂혀 있는 장서들은 열을 맞춰 기립박수 칠 준비를 하는 이등병들의 면면 같았다.

고(故) 장현의 ‘미련’, 따로 또 같이의 ‘램도는

열골’ 등 서정적인 곡들로 막을 올렸다. 올드 포크 송이지만 조붓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기타 선율의 포근함과 통기타 울림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백석 ‘동영’ 등 30년대 명시에 기타 반주를 접맥한 곡도 울려 퍼졌다. 이어 고두현 시인의 ‘빈자리’, ‘한 여름’은 하모니카 연주자 부각되는 곡이었다. 이외 김남주 시 ‘주먹밥’에서 모티브를 얻은 동명의 곡 ‘주먹밥 정신’으로 대변되는 5·18 광주정신과도 맞물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연의 클라이막스는 ‘이등병의 편지’. 남녀노소 관객들 대부분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김현성의 예스러운 목소리는 ‘명불허전’ 오리지널의 실력을 보여줬다.

히트곡 ‘가을 우체국 앞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기타줄을 쓸어내리듯 스트로크하는 모습은 낙엽지는 가을날을 연상케 했다.

김현성은 “광주는 찾을 때마다 고향에 오는 것 같다”며 “이등병의 편지가 40주년을 맞았는데, 광주 시민들에게 데스크 콘서트 형식으로 노래를 들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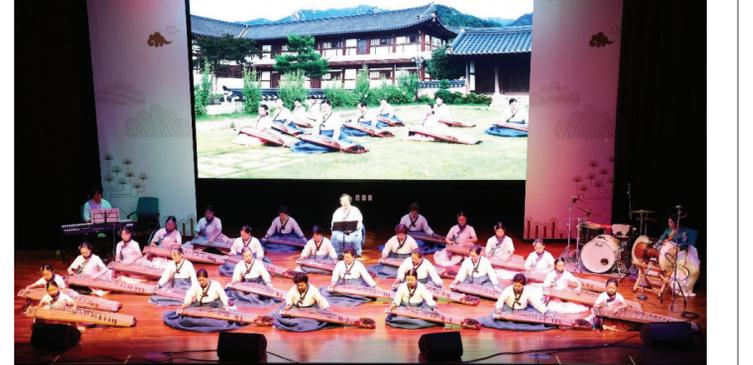


이매진도서관 메이홀에서 원곡자 김현성이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는 모습.

릴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이등병을 포함한 국군 장정들이 몸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 8월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가 ‘우리 창가를 부르게 하라’를 선보이는 모습.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제공〉

공연으로 만나는 ‘마한 the 금 있다, 있다’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31일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문명의 길/ 거기 마한이 있었다.”(장경진의 ‘마한의 맥을 있다, 있다’ 중에서)

2천 년 전 융성했던 ‘마한(馬韓)’은 고대 삼한 중 하나로 54개 부족의 연맹체였다. 가장 넓은 지역에 자리했으며 여러 부족문화가 공존하는 등, 화려한 문화유물을 만들어 냈다.

마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공연이 열린다.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예술감독 정선옥)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선보이는 ‘마한 the 금 있다, 있다’가 바로 그것.

먼저 유창영이 작곡한 ‘마한의 병창’이 울려 퍼진다. 월자국의 부족장과 제사장 등이 2000년 시간을 초월해 현재의 영암을 방문하면서 펼쳐지는 가상의 내용을 가야금 병창과

나리리에 담았다. 주행덕, 최인숙, 김다운 등 소리꾼들이 마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25현 가야금과 타악기 장단이 곁들여질 예정이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도 들을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인 김죽파류 산조는 남도의 한을 표현하는 곡이다. 12현 가야금을 정선옥, 오은수 등이 연주한다.

이외에도 연희 공연 ‘마한의 하늘랑’, 재즈와 전통음악의 크로스오버 ‘바람, 강’, ‘맥’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정선옥 예술감독은 “고대 해상왕국 마한의 역사를 ‘음악’을 매개로 현재화하는 공연”이라며 “마한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공동체의 치유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강연, 31일 전일빌딩245

여순항쟁 등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아픔의 역사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국가폭력에 의한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김명권)는 여덟 번째 치유 인문학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주철희 박사(역사 연구자·사진)를 초청, ‘공동체의 치유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31일 오

후 7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

여순항쟁을 비롯해 국가폭력과 반공문화에 대해 집중 연구해온 주철희 박사는 아울러 지역사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동안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를 비롯해 ‘주철희의 여순항쟁 답사기 1-2’,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별량국민들’ 등 저서를 펴냈다.

김명권 트라우마센터장은 “이번 강연은 국가폭력 당사자 및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와 치유공동



체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어온 ‘치유의 인문학’ 일환으로 개최된다”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재현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치유인문학 마지막 시간은 오는 11월에 영광우(장재성기념사업회운영위원장)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트라우마센터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별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